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뽀르피리오스 가자의 주교

탕자 주일

세례 요한의 참수당한 머리 발견 기념일

제6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160, B 152
- 성당 찬양송
- 탕자 주일 시기송 / 220, B 270
- 사도경 : II 고린토 4,6-15 / 봉독서 248
- 복음경 : 루가 15,11-32 / 133, B 8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뽀르피리오스 가자의 주교

그리스의 데살로니카는 교회의 많은 성인, 순교자, 수도자, 교부의 고향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2월 26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뽀르피리오스 가자의 주교(348~420)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뽀르피리오스 성인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 물질의 부를 다 내려놓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역에 진정으로 헌

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누구도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부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믿음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헌신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 데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잘것없는 찌꺼기로 여깁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교회에 헌신한 성인의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이들은 어떻게 사과하는 법을 배울까요?

사회 관계, 가족 관계, 친구관계, 동업 관계 등 어떤 인간 관계에서나 사과와 용서의 능력이 없다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법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인간 관계 문제를 해결해 줄 사과와 용서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1.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솔선해서 잘못했을 때마다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예: “할머니,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애야,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근데 그 순간에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단다.”
2. 자녀가 다른 집 아이에게 잘못할 때 부모는 먼저 그 아이에게 자녀를 대신하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예: “길동아, 우리 아이가 네 차례인 걸 몰랐었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3. 자녀에게 사과의 이유와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줍니다.
예: “철수야, 너를 올려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장난감은 너의 것이 아니라 만수

의 것이란다.”

4. 자녀에게 왜 반드시 사과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왜 잘못된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아이의 머리가 당겼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니?”
5. 자녀가 스스로 사과할 땐 칭찬해주십시오.
예: “철수야, 잘했어! 상냥하게 너의 친구에게 사과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야.”
6. 미취학 아동들은 서로 싸운 후에도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라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너희가 싸우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야. 하지만 서로 싸우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앞으로는 사이좋게 놀도록 하렴.”
7.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이끌어줍니다. 즉, 잘못을 깨닫고 사과한 뒤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끼친 해를 보상해 주어야 함을 느끼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사과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아이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갚을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미안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의 장난감이 망가졌으니까 내 것 하나를 줄게.”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의지하고 살 만한 지혜의 말씀

옛날에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 모든 농부들이 한 곳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기도하려는 날, 농부들은 전부 특별한 한 장소에 모였다. 그러나 이때 오직 한 젊은 농부만이 우산을 든 채로 그곳에 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아기를 공중으로 던지면 보통은 아기가 웃는다. 왜냐하면 아기는 어른이 자기를 다시 잘 받아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뢰이다!

밤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증이나 확약(確約)이 없이도 잠자리에 든다. 그리곤 계속해서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시계의 신호음을 맞춘다.

이것이 희망이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앞날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스스로 가지는 신념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지만, 계속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배가 하느님에 의해 이끌어지도록 하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에 몸을 맡기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모든 걸 훨씬 더 잘 아시니까...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영혼 토요일

3월 2일 토요일은 영혼 토요일입니다. 성찬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념하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폴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뜨리오디온 기간을 잘 보냅니다

뜨리오디온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 정교회출판사에서 출간한 『대사순절』, 『성 에프렘의 기도』 등을 읽으면서 대사순절과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잘 알아가도록 합니다. 이 두 권의 영적 독서를 통해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장년회 봄 단합대회

오는 3월 3일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 한양도성 성곽 길(2코스, 낙산 구간) 트레킹을 할 것입니다. 개인 준비물은 등산화, 여벌 옷, 모자 등입니다. 둘레길 트레킹 후에는 기념 촬영 및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 예식

· 3월 2일(토)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